

神父님, 우리들의 神父님

송대극회 제33회 정기공연

- ◆작 : 조반니노 파레스키 ◆각색 : 김춘수
- ◆기획 : 하승민 ◆연출 : 송기범
- ◆일시 : 1985. 11. 21·22(목·금) PM 6시
23(토) PM 2시·5시
- ◆장소 : 송전대학교 대학극장

격려사



총장직무대리 어운배

개교 88주년 연인이 흘러온 송실의 백속에 르네상스 연극예술창조의 험로를 땀으로 수놓는 송대극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금번 송대극회 창립 20주년을 맞이까지 이들의 젊음은 세찬 바람속에 차가운 허공을 더듬으며 한울의 촛불을 돌우고자 손을 모아 꾸준한 순수예술지향과 진리의 탐을 쌓는 그루터기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세지인 이번 공연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과 그동안 수고한 손길위에 감사드리며 많은 결실을 기원하면서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모시는 글



기획 하승민

낙엽뒤에 접어드는 회색빛 계절을 맞으려니 20년이란 무게로 짓눌려 오는 극회달력이 무겁기만 하고 앞에 놓인 숙제는 많기도 합니다. 비록, 미숙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비상(飛翔)연습중의 젊음을 안고 실험극의 사명과 현대인의 갈구가 내포된 보편적 예술 추구의 주문에 보답코자 땀흘릴 것입니다. 편안히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희극속에, 그 웃음의 과도속에 변독이는 이시대 인간풍정의 아픈 신음소리를 담고자 무대뒷작업은 뜨거웠습니다.

해도, 무대는 배우의 것이지만 배우는 관객의 것입니다.

많은 질타와 편달을 바라오며, 특히 졸업을 앞두시고도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중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와 작품

작품에 대하여

— 神父님, 우리들의 神父님 · 조반니노파레스키 —

1908년 5월 1일 작가 조반니노 파레스키는 이탈리아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출생, 18세 무렵부터 광고문안작가, 만화가, 교사, 기자 등의 갖가지 직업을 전전끝에 <베르톨도>라는 주간지의 편집국장이 되고선 이 신문에 스스로 만화까지 그려가며 이 작품을 연재, 단번에 이탈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수십개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으나 그들은 그냥 퍽없이 웃기만 한 것은 아니며 바로 사랑과 감동의 웃음이었다.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갖가지 사건속에 표출되는 성격이 모든 인간적인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게다가 그런 일들이 구김살없는 명랑한 웃음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좌익과 우익의 대립, 실업과 과업의 문제, 정치와 종교의 대립, 부자와 노동자들의 투쟁등 사실이 극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모두가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떠맡고 싸워나가는 돈까밀로신부도, 음장 빼빼네도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고충을 겪는다. 때로 그들의 싸움과 대립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잔인함이나 파괴적인 모습이 비치기는 하지만 곧 그것들을 씻어 버리는 사랑에 가득찬 따스한 물질이 밀려옴으로 하여 이런 느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돈까밀로의 신부답지 못한 거짓말과, 욕심, 분노, 난폭한 행동도 소박한 마음과 부동의 신앙심으로 용서를 받으며, 또 빼빼네의 음장답지 못한 싸움꾼같은 행동과 어리석고 급한 성질, 독재자같은 행동도 그의 선량하고 굳센 의지와 우스꽝스러운 우직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진실한 용기와 정의를 품은 신부와 믿음직스럽고 정직, 용감한 음장의 사이에 예수가 등장함으로 극의 품위를 높여준다. 그는 돈까밀로의 친절한 스승으로서 그의 행동이 과격해질때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날 때 딱딱한 교훈조의 가르침이 아닌, 그윽히 미소와 사랑을 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때로는 엄하게 충고해 주는데 그의 눈길은 신부에게만이 아니라 빼빼네와 부하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다. 작가는 「예수가 맘에 안들어도 할 수 없다. 이 작품의 예수는 자기 양심속에 살아있는 예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설혹, 극중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교리에 얽매인 고리타분한 신학자거나, 어리석음에 가득찬 광적신자거나, 딱한 무신론자일 것이다. 혹자는 이 극을 오늘의 우리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극의 곳곳에 나오는 사건들은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이야기들이다. 어쩌면 이 극 전체가 죄다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들보다는 가일층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극 전편을 통해서 흐르는 주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예수의 강력한 주장이다. 예수는 끊임없이 주장한다. 그리고 간곡히 우리를 타이른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 일을 생각해 보라.」



연출 송기범 (경영 2)

“자네는 당나귀야,
 알비위질 수가 없는 그런 당나귀...”
 “그리고 당신은 코뿔소구요,
 사납고 우둔한 코뿔소말이요.”
 저들은 이 세속의 땅에 천국을 마련하겠다고
 헛되이 애쓰는 것을...
 그러나 저들이 만들어낸 온갖 문명의 이기는
 지옥을 지배하는 한낱 컴퓨터에 불과한 것을...
 눈이 왔음 좋겠다.
 부끄러운 얼굴 어찌할까나.



돈까밀로 이길영
(섬유 1)



빼빼네 안선후
(섬유 1)



음장아내 이민선
(전산 1)



스미르쵸 최우정
(조연출) (수학 1)



보스카치오 박서림
(전자 1)



브르스고 이준석
(기계 1)



예수 조호천
(국문 1)



폴로라 황금실
(국문 1)



판사·스피치오 안상준
(기계 1)



지고또 이용희
(기계 1)



비지오 김인섭
(기계 1)

Jovannino Guareschi
Don Camillo, s Dilemma



祝
公
演

3 & 5 art space group

- theatre
- gallery
- concert hall
- total design



STAFF



기획 하승민
(전산 2)



무대감독 차세훈
(전기 4)



조명 허공
(건축 2)



음향 배비호
(전산 1)



분장 최윤희



의상 김은영
(불문 2)



소품 한혜정
(전산 1)



무대장치 이승하
(불문 1)



진행 왕동미
(사사 1)

송대극회 정기공연



극광

공연예술종합기획

사무실 813-3439

야간 722-0461

공연을 축하합니다

구 내 서 점

OPEN

태 양 당 구 장

(상업은행 3층) TEL. 812-0823